

생물산업지원센터 '부실업체'에 특혜

특정 컨설팅사 통해 업무 추진 '논란'

멜론 납품 대금 2억원 못 받을 위기

전남도 산하 생물산업지원센터가 특정 컨설팅 업체를 통해 특목작물에 대한 가공, 유통 등의 '소재화 사업'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소재화 사업을 맡고 있는 컨설팅 업체가 수억 원대의 농산물을 납품받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나주시 동수동 농공단지에서 설립된 전남생물산업지원센터는 전남도

내 9개 특목작물을 가공해 상품화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포농협은 지난 2007년 11월 전남생물지원센터와 '컬러 멜론 육성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1차로 A사에 1억2천만원 상당의 멜론을 납품했으며 8천300만원의 가공용 멜론 2차 납품을 앞두고 있다.

전남생물지원센터는 센터 내에 입

주해 있는 A사의 전문성을 인정, 산포농협과의 계약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A사는 멜론을 납품받은 뒤 지난 1월부터 매달 4천여만원씩 3월 까지 완불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는 등 현재까지 2억여원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A사는 또 나주와 무안 등 전남도 내 4개 식품회사에 지급해야 할 가공비 2억여원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런데도 생물지원센터는 도비와 시·군비 등 5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온 9건의 소재화 사업 컨설팅 가운데 상당부분을 A사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포농협 관계자는 "센터가 자본력이 없는 유통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생산자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5월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물지원센터 관계자는 "컬러 멜론 육성사업은 농협과 A사가 직접 계약을 한 사안이어서 센터와는 무관하다"며 "A사와 서울 모회사가 멜론제품 판매에 협의한 만큼 다음달 말까지 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장흥군 노후 상수관 교체 맑고 풍부한 장흥댐 물 공급을 위한 설비 공사가 한창이다. 장흥군은 올해 18억9천여만원을 들여 장흥읍과 회진면 지역 노후 상수관 12km에 대한 교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함평 나비엑스포 1천여 학교 예약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각지의 유치원과 초·중·고 1천여개교, 17만여명의 엑스포 관람이 예약돼 있다.

23일에도 대구 경서중과 경기 화성 중앙초, 광주 금강어린이집, 곡성 입면초, 광주 체육고 등 60개 학교에서 모두 1만2천여명의 학생들이 엑스포를 관람했으며 25일에는 130여개 학교, 2만여명의 학생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수첩과 볼펜을 들고 메모를 하면서 친환경농업전시관, 국제곤충관, 나비·곤충표본관, 국제나비생태관, 한국토종민물고기전시관, 황금박쥐생태관 등 풍성한 체험 학습 공간을 관람했다.

특히 평소 쉽게 보기 힘든 살아있는 나비와 잠수풍뎀이, 사슴벌레, 벌 등의 곤충들에 깊은 흥미를 나타냈으며 직접 바지를 걷고 물속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지난 18일 막을 올린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함평군 함평읍 109만㎡의 엑스포공원에서 오는 6월 1일까지 계속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한우 고기값 확~ 내렸습니다

장흥 토요일 시장, 쇠고기 협상 여파 10~30% 인하

장흥 토요일시장 한우판매장이 지난 23일부터 쇠고기값을 10~30% 인하했다.

이번 가격 인하로 불고기용 한우 600g은 1만2천원에서 9천원, 구이용(채끝)은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 육회용은 1만3천원에서 1만1천원, 장조

림용은 1만원에서 9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우족(개당)은 4만5천원에서 4만원, 사골 10만원→8만원, 꼬리뼈·반골 세트 13만원→12만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토요일 시장 한우판매장은 생산농가

에서 한우를 구입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방식을 채택,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형 시장'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장흥군은 앞으로 토요일시장에 인프라 시설을 확충, 소비자들이 손쉽게

한우를 구입하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판매 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세계 다문화관'을 건립해 외국인 만남의 장소와 국가별 이색적인 상품 전시 및 판매의 장도 마련키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토요일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순수 한우고기만을 판매하는 한우판매인증서와 매일 도축한 소의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등급판정 확인서를 게시하고 있다"며 "미국 쇠고기가 들어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크루즈 유람선 '팬스타 허니'호 완도 입항

월 2차례 운항

국내 최초의 연안 크루즈 관광 유람선인 '팬스타 허니'호(1만5천t·사진)가 24일 완도항에 입항했다.

완도군은 이날 오전 김홍식 군수를 비롯해 김두식 해경서장 등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가졌다.

유람선 승객들은 완도 관광명소인 장보고 유적지를 비롯해 보길도 운선도 유적지, 해신 세트장,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을 둘러보고 청정 완도해역에서 생산된 해산물과 생선회를 즐겼다.

부산을 모항으로 한 팬스타 허니호는 부산항을 출발, 통영~여수~완도~제주도를 경유하는 남



해안 연안 항로를 1개월에 두차례 왕복 운항한다. 팬스타 허니호는 고급 숙박시설은 물론 공연장, 레스토랑, 나이트

바, 아이 수영장, 마사지실, 소풍용 소형 극장, 사우나 등 각종 편의·오락시설을 갖춘 관광 유람선이다. /완도=정은기자 ejchung@

여권 발급 현장 접수 해남 주민들 큰 호응

"여권 발급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해남군의 '여권발급 현장방문 접수제'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해외 여행 증가로 여권발급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4월부터 실시중인 '여권발급 현장방문 접수제'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에는 해남 황산면 시흥 노인대학의 요청에 따라 현장방문 직접 방문, 30명에 대한 여권 신청 서류를 처리하기도 했다.

여권발급 현장 접수제는 10인 이상 단체를 비롯해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접수와 불편 사항을 처리해 주는 제도다. /해남=박진기기자 lucky@

홍어 먹고 유채꽃 보고

오늘부터 3일간 나주 영산포 홍어축제

나주의 대표적 특산물의 하나인 홍어를 주제로 한 영산포 홍어축제가 25일부터 3일간 영산포 선창 일원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 기획에서 진행까지 도맡아 하는 등 철저한

민간 주도 주민 축제로 치러진다. 추진위는 영산강 둔치를 노랑계 물들이 10여만㎡의 유채밭에 마련된 특설무대와 주변 홍어상가 등에서 다양한 공연과 경연, 체험행사 등을 마련했다. 풍물놀이와 폼바, 마술쇼, 밸리

댄스 등 10여 가지 공연과 홍어퀴즈대회, 홍어 예쁘게 찢기, 홍어삼합 먹기와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이밖에 특산물 시장, 향토음식점 운영, 추억의 영산포 사진전, 건강캡트 운영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영산포는 1970년대 말까지 홍어와 젓갈 집산지로 유명했으나 1980년대 초 하구언이 생기면서 그 명맥이 끊긴 뒤 최근 3~4년 사이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광산구 어등산에 의병운동 기념공간 조성을"

순천대 흥영기 교수

구한말 의병운동의 주요 격전지인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 의병운동 기념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대학교 사학과 흥영기 교수는 24일 '한말 호남 의병과 어등산 전투'

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앞두고 발표한 특강 요지에서 의병운동 전적지로서 어등산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흥 교수는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활성화된 1907년 이후 의병운동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은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이며 특히 어등산은 수많은 의병들이 희생당한 격전지"라고 주

장했다. 그는 또 어등산이 호남 의병의 주된 근거지였으며 특히 전북 고창 문수사와 담양 무동촌, 장성 토전 등지에서 일분군을 폐퇴시켜 이들을 펼쳤던 의병장 김준이 전사한 곳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